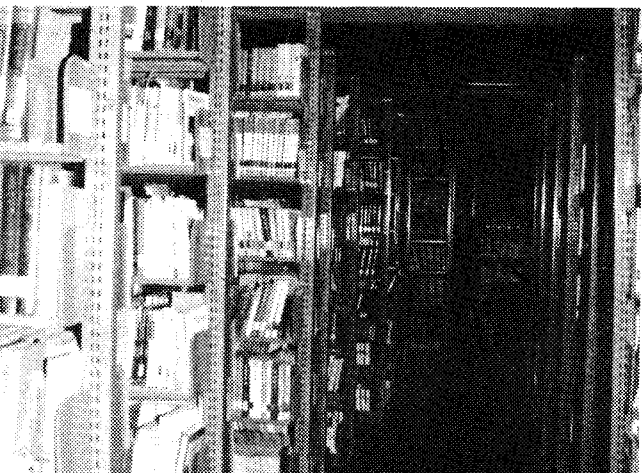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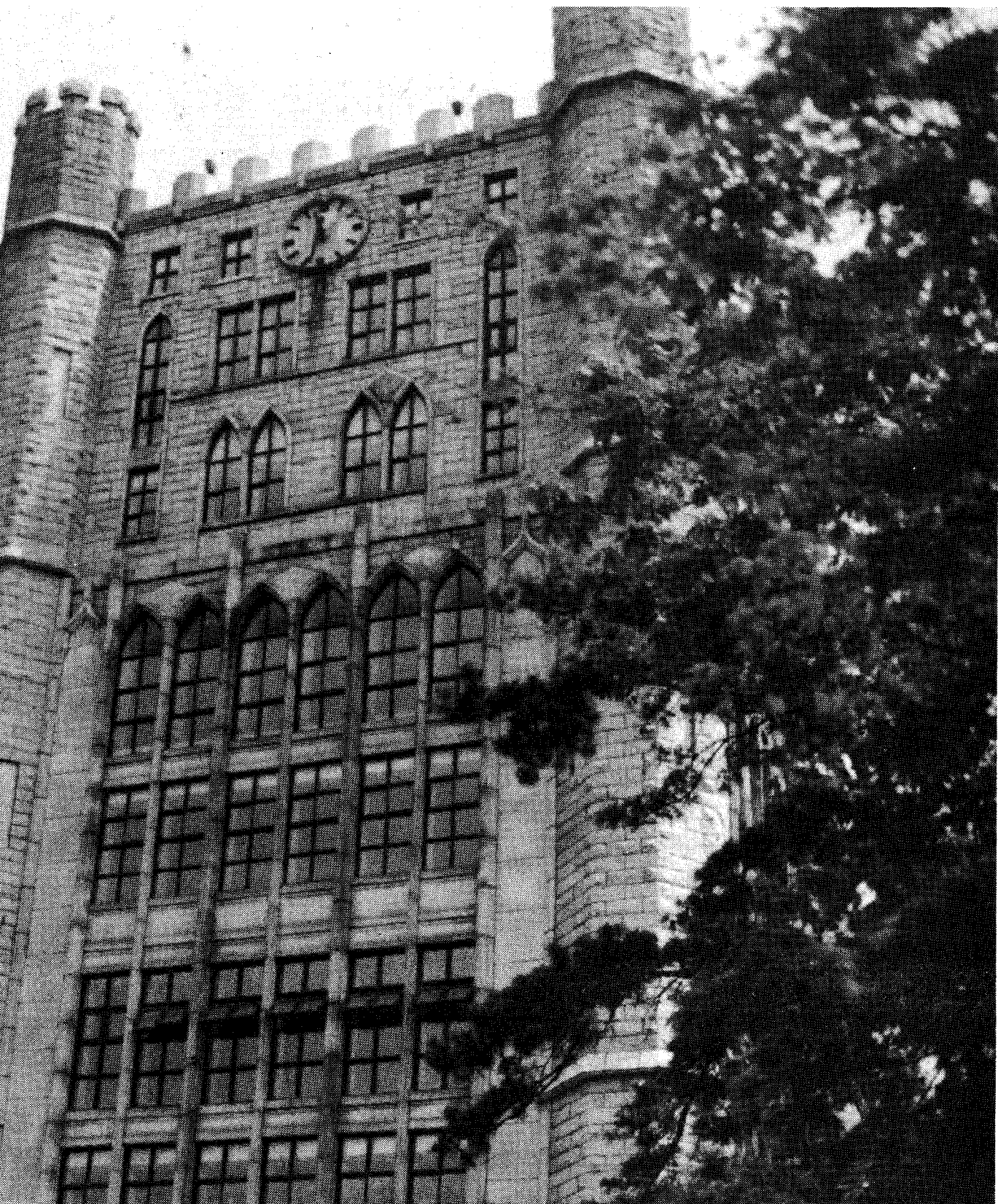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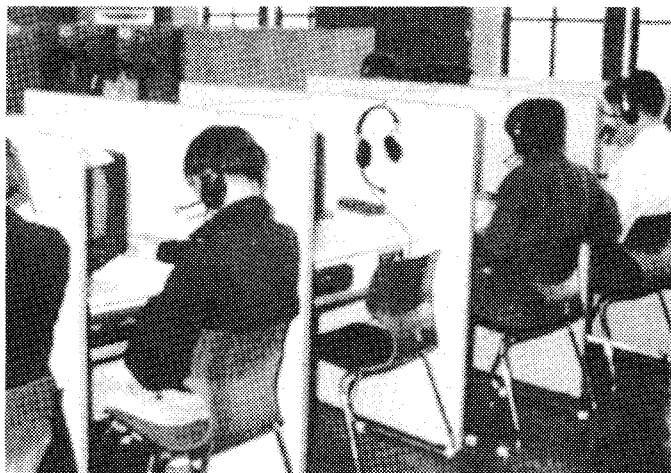




▲폐가열람실 공간이 여의치 않아 대다수 장서가 폐가식 서고에 쌓여있다. 습도 및 온도조절에 유의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서적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신청한 서적은 가능한 빨리 대출해 주어야겠다.



▲교육매체센터 어학 테이프, 영화, 사회과학 프로그램 등으로 소장하고 있는 교육매체센터는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다수 학생들이 이시 설을 외면하고 있다. 이용자의 대부분이 찾는 어학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구비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전산화

멀티미디어화 활발히 추진

최근 대학 내 디지털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전산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교육부의 5·13교육개혁에 따른 첨단 대학의 지원과 유도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도서관 멀티미디어화는 이제 대학의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자리잡았다.

우리학교도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이달 초 광운대, 부산대 등과 같이 전자 도서관화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는 전자열람실 및 CD-Rom 검색실에서 목록조회 뿐 아니라 외국 석·박사 학위는 문색인과 조록 및 주제별 학술잡지기사 색인, 조록과 원문, 백과사전과 어학사전의 복합매체자료 등 다양한 주제의 CD-Rom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서적의 원문을 컴퓨터로 읽는 활용은 저작권 문제가 개입되어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타학교와의 정보교환이 그리 활발하지 못한 것도 저작권이 문제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외의 최신 학술정보를 검색, 제공받을 수도 있어서 학생들이 닫힌 도서관을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전산화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과는 다르게 실제로 멀티미디어실 이용에 대한 학생들의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일반 학생들은 아직까지 기존 도서관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CD-Rom이용 등을 기피하는 것이다. 이용 안내에 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능동적으로 문의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각 대학들은 경제적으로 도서관 전산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많은 양의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활용성이 있고 유용한가하는 문제이다. 아직까지 보편적인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갖춘 학교가 없는 실정이라 대학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단순한 타대학의 시스템 답습에 머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계도를 선별하여 홍보와 함께 점진적으로 전산화하는 것이 우리학교 중앙도서관이 전국대학도서관 정상에 오르는 지름길일 것이다.

□교육매체 센터

공간확충 꾸준히 연구해야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3층에 교육매체센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이를 아는 학생 중에서도 직접 이용해 본 학생은 25.4%로 매우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교육매체센터를 자주 이용하는 조영진(경영4)군은 “주로 어학공부를 위해 들리는데 자료가 부족해 반복해서 듣거나 위성 방송을 시청한다”며 “다른 학생들도 주로 어학 공부에 치중해서 시설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자료비치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어 정기 간행물에 딸린 카세트 등이 정기적으로 소장되고 있으나 작년부터 자료구입이 원활히 시행되지 않아 현재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급한대로 녹화한 자료를 늘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밖에 KBS, MBC, SBS, EBS의 전 방송을 녹화시켜 한달간격으로 소장해서 필요한 학생은 이를 대여할 수 있다.

시설 이용면에서는 타학교에 비해 우수한 수준이다. 소정의 이용료를 받는 이화여대나 포항공대와는 달리 무료이고 제한 시간도 없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이 일부 학생들의 사색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총 좌석수는 30석이고 이중 10석에서만 현재 위성 방송청취가 가능한데 곧 30석 전체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자료 구입은 봄, 가을에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학생들의 참여가 미흡해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단 구입한 것은 파손을 우려해서 여러 개를 복사해 대출용으로 배치하고 시설이 열악한 수원캠퍼스로 보내기도 한다.

현재 환경개선에 많이 신경쓰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체력 조건이 좋아짐에 따라 책상을 높이고 학습여건을 개선기 위해 1인당 배정 좌석의 공간을 좀더 넓힐 예정이다.

교육매체센터의 한 직원은 “신입생들이 찾아와서 문의하기도 하지만 주로 일정 학생들이 단골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설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술부)

갖춰진 시설 잘 활용하자

서울캠퍼스 도서관장 도정일(영문)교수

중앙 도서관이 지난 가장 큰 문제점은?

공간확충이다. 가장 이상적인 도서관상은 이용자들에게 완전 개방된 도서관인데 현재 서울 캠퍼스 장서75만권중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서적은 15만권 뿐이다. 나머지는 공간부족으로 모두 서고에 보관하고 사서가 책을 찾아주게 되어 있다. 심지어 서고공간도 부족해 책을 쌓아두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습기가 차서 도서의 보존상태도 나쁘고 체계적인 분류와 정리도 쉽지 않다. 심지어는 사서도 책을 찾지 못할 때가 있다.

공간확충을 위한 대안은?

좁은 공간이지만 내부공간을 도서관이 전용한다면 어느정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관내 다른 기관이 학내 다른 공간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 고민이다. 중앙박물관의 경우 옮긴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디로 이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비람직한 도서관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학이 학문하는 곳이라면 도서관은 연구 교육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보유하고 공부하려는 사람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은 학생들이 자신의 책을 싸들고 와서 공부하는 열람실이 아니라 학문연구의 심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 대부분의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참된 구실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대 전환이 시급하다.

도서관 이용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바는?

도서관은 공공시설이며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져 줬으면 한다. 도서관내 금연을 정착시키는데 3년이 걸렸고 지금은 많이 없지만 도서관내 후 필요한 부분만 오려내는 학생들도 있었다. 도서관에 대한 투자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들의 요구를 높이고 성숙된 분위기를 만들어가려할 때 촉진될 수 있다.

(최수정 기자)

인터뷰

인원 확충이 가장 시급

수원캠퍼스 도서관장 허종(영문)교수

개관 후 사업에는

신간으로 이주한 뒤 2년 6개월 동안 18만권의 장서에서 40만권으로 증대된 것이 가장 큰 결과이다. 물론 정보시스템(KULIS) 구축에 힘써 온 결과 타 대학과 비교해 가장 우수하다는 부분에 자부심도 느낀다. 최근에 들어 주력하는 사업이라 하면 도서관의 전자·정보화를 꼽을 수 있다.

전산시스템의 장점은

시대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필요한 분야가 전자·정보 분야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도서관 이전 후 가장 주력하여 구축한 것이 KULIS(Kyunghee University Library Information System)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료검색은 물론 신착자료 조회, 개인별 대출·예약 확인, 회람도서 신청 및 확인, 전자사서함·전자건의함을 통한 건의가 가능하다. 또한 이 KULIS 접속은 인터넷과 학교 LAN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도서관 운영에 가장 힘든 점은

일손이 부족하다. 1년간 현재 도서관의 직원이 수용할 수 있는 책을 2만권으로 봤을 시 나머지 책들은 일손부족으로 미정리 상태로 남게 되는 실정이다. 인원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앞으로의 계획은

휴게실 확대를 위해 구상 중이다. 물론 마땅한 공간을 선정하기가 힘들 것이나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지역사회봉사에 앞장서는 방법으로 영통지구 입주 후 일반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최진원 기자)



생활속에 향기를 더해주는 - 동서식품



컴퓨터와 마주 앉아 쓰는 일기.
일기쓰는 시간마저 아끼려는 듯
두 손으로 부지런히 자판을 두드려냅니다.
이런 일기라하면 남에게 들릴 일도 없고 보관하기도 쉽겠군요.

"펜은 Keyboard보다 향기롭다"



깊은 밤,
커피 한잔을 준비해 두고 하루를
돌아보듯 펼쳐드는 일기장.
하얀 일기장을 한줄 한줄 채워가는
동안 방안 가득 커피향이 퍼지고
그렇게 하루가 마감되어 갑니다.

문득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싶을 때 빛바랜 일기장을 꺼내들고
한장 한장 넘겨보는 느낌은 분명, 커피 한잔없이 컴퓨터에
쏟아내려한 일기와는 다를 테지요.

한잔의 커피로 충만해지는 생활, 동서식품이 가꿔드립니다.

향기로온 생활문화를 동서식품이 이끌어갑니다

- 동서 커피문화상 ●「팩심배」 생활체육 전국스키대회
- 동서음악제 ●동서 장학회 설립, 운영
- 국군 부대 자매 결연

동서식품